



축 산 업 경 영 관 리(IV)

민 경 래
(퓨리나 코리아 경영지도부장)

5. 대차대조표란 무엇인가

이번회에서도 지난 2회에서 설명했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지난회에서 간단히 설명했던 바와같이 대차대조표란 어느때고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상태를 표시해 주는데 그 관계를 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대 차 대 조 표

○ ○ 농 장		년 월 일	현 재
차 변(借邊)	대 변(貸邊)		
원 편	바른 편		
자 산	부 채		
기업의 자본이 기업 운영 목적에 따라서 배분(配分) 운용되고 있는 상태를 표시한다.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본의 출처를 표시한다.		

즉 대차대조표란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차변은 : 기업의 소유관계를 표시하고 대변은 : 기업의 채무관계를 표시한다.

(1) 차변의 자산은 기업이 기업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시해줌으로 기업의 소유관계를 표시해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2) 대변은 기업의 채무관계를 표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없지 않은듯하다. 기

업주 자신의 자본이 아닌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관계를 표시하는데 의문이 없겠으나 기업주 자신이 투자한 자기자본금까지도 채무관계를 표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있을줄 안다. 그러나 다음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 되리라 믿는다.

지난회에서도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주 자신의 사유 재산과 기업에 투자한 자본과는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기업주 자신이 투자한 자기 자본도 기업주 개인 소유의 사유재산의 일부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주에 대한 채무임에는 틀림없다.

즉 자기 자본을 기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채무로서의 차입금이 아닌 자기투자 자본임으로 부채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주에 대한 채무인 것이다. 즉 기업을 해체한다고 생각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이나 미불금 등 부채도 청산해야겠지만 기업주에게도 투자한 자본을 되돌려주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자기 자본인 기업주가 투자한 자본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채무가 틀림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 했으리라 믿는다.

6. 채무 제표는 왜 필요한가?

대차 대조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 대부분 목적으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업외부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제표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라면 대기업 같은 법인체인 회사 같은 곳

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들행 생각하기 쉬우나 적든 크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타인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든 자본이 투자됐을 것은 당연하며 자본이 투자된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그 투자된 자본이나 그 자본으로 별은 이익금이 기업체 자산에 분포(分布) 운용되고 있을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업의 자산도 존재할 것이다. 이와같이 자산과 자본 및 부채가 있는 이상 어떻한 기업이든 그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대차 대조표나 손익 계산서 다시 말해서 재무 제표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단지 회사 같은 법인체는 법률로서 재무제표를 작성 내지는 공고하도록 의무화 되여 있는 관계로 당연히 기록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나면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따라 대차 대조표도 함께 작성하고 또한 공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체나 법인체 조직이 아닌 개인 기업체에서는 기록을 하자니 힘이들고 전문가인 경리 직원을 채용하자니 인건비가 드는 등 복잡한 문제가 개재함으로 혼히들 대차 대조표나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뿐이다.

흔히는 대차 대조표나 손익 계산서 하면 무척 어렵고 또한 별로 알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은 경리 전문가나 알 일처럼 남의 일같이 생각들을 하지만 실은 내용을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만도 아니고 또한 경리 전문가 만이 알아야 할 일도 아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사실은 재무 제표를 접하는 기회가 많지만 흔히는 관심이 없거나 또는 어렵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리는 수가 많다. 그 실례를 들면 해가 바뀌어 신년도초나 때로는 년중에 각 신문 지상에 국내의 유수한 기업체의 결산 공고에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게재된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직접 자기와는 무관하고 또한 잘알지도 못하는 탓으로 그냥 지나쳐 버렸겠으나 본란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에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누구나 이해 할 수 있을 줄 믿는다.

현대 기업의 특징은 경영과 자본의 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자본은 가지고 있으나 사업운영의 능력이

나 경험이 없거나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사업운영의 능력이나 경험은 있으면서도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법인체인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등과 같은 기업인 것이다.

즉 자본을 가진 주주와 능력과 경험을 가진 임원 및 이사의 결합체가 오늘날의 기업인 것이다. 법인체 조직인 회사는 몇 사람의 소수의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운영되는 수도 있으나 다수의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기존주주(既存株主)가 자본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기존 주 이외의 새로운 주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그 기업체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자본을 떨리가 없을 것이다. 즉 그 회사의 주(株)를 사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혼히들 말하듯이 그 회사가 튼튼하냐(즉 전전 하냐) 또는 수지가 맞는 회사냐(즉 수익성이 있는 회사냐)하는 점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것이다. 이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그 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면 그 회사의 전전 여부를 알 수 있겠고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수익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업체에 투자할 투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상법에 모든 법인기업체는 그 결산 결과인 손익 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반드시 신문지상에 공고하여 일반 투자 대중이 그 기업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국내의 많은 유명기업체가 주식을 공모하는 공고나 사채(社債)를 발행하는 광고가 신문 지상에 나는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때 여러분중의 누군가가 그 기업체의 주식이나 채권(債券)을 사려고 할 때 그 기업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는 것이 가장 손쉽고 빠른 것이다.

다음에는 재무제표가 우리의 일상 경제 생활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몇 가지 부가해서 설명하겠다. 격변하는 오늘 날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기업 내부적으로는 주주 경영자, 중견 간부 및 종업원을 비롯하여,

기업 외부적으로는 그 기업체와 거래하는 고정, 납품업자, 하청업자 및 금융기관에 이르기 까지 그 기업체와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으로 볼 때 그 기업체의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기업체가 불건전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경우

1.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그 기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없다면 자기의 자본을 회수하려 할 것이고 차라리 수익성은 낮으나 안전한 금융 기관에 정기 예금을 하든가 아니면 국가나 대기업체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사채(社債)에 투자 하려 할 것이다.

2. 경영자나 중견 간부 및 종업원 등은 기업체와 자기의 운명 및 장래가 직결됨으로 능력 있는 간부나 직원은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3. 거래자인 고객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체가 불건전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계속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때 자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보다 건전한 기업체로 거래를 바꾸는 것이 자기 사업의 계속유지를 위하여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4. 납품업자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업체가 분전 실할 때 자기의 채권을 보장받을 수 없음으로 이미 납품한 물품의 대금이나 이미 대출한 채권을 회수하고 더 이상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우리의 일상 경제 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7.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대차대조표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업

체에 전부 존재하나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의 항목이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즉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 다음에 상세한 설명이 있음이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및 자본으로 구성되며 차변의 자산과 대변의 부채 및 자본의 다시 다음의 설명하는 바와 같은 계정과목(計定科目)으로 구성된다. 재무 제표라 함은 회계학이나 부기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계정이란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거래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한 것을 계정이라 하여 계정 앞에 붙이는 명칭을 계정과목이라 한다.

대차대조표

차변	대변						
자산	<table border="1"> <tr> <td>1. 유동자산</td><td>1. 유동부채</td></tr> <tr> <td>2. 고정자산</td><td>2. 고정부채</td></tr> <tr> <td>3. 기타자산</td><td></td></tr> </table>	1. 유동자산	1. 유동부채	2. 고정자산	2. 고정부채	3. 기타자산	
1. 유동자산	1. 유동부채						
2. 고정자산	2. 고정부채						
3. 기타자산							
자본	<table border="1"> <tr> <td>1. 자본금</td><td>1. 자본금</td></tr> <tr> <td>2. 잉여금</td><td>2. 잉여금</td></tr> <tr> <td>3. 순이익</td><td>3. 순이익</td></tr> </table>	1. 자본금	1. 자본금	2. 잉여금	2. 잉여금	3. 순이익	3. 순이익
1. 자본금	1. 자본금						
2. 잉여금	2. 잉여금						
3. 순이익	3. 순이익						
자산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대차 대조표는 위의 양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 되는데 한가지 특기한 것은 대차 대조표의 차변의 자산의 총계와 대변의 부채 및 자본의 총계는 같다는 것이다. 이것을 부기학상 대차평균의 원리(貸借平均의, 原理)라고 한다.

1. 유동자산(流動資產)

유동 자산이란 기업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 중 현금화 되는 기간이 일년 이내인 자산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현금 : 현금은 이미 현금화 되어 있음으로 현금화 되는데 시간이 필요치 않다.

(2) 예금 : 예금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등 일체의 예금이 모두 포함되며 이와 같은 예금은 기업주가 원하는 시기에 어느 때고 현금화 할 수 있으므로 유동자산에 속한다.

(3) 받을 어음 : 받을 어음은 거래선이나 기타 기업과 관계가 있는 곳으로부터 받은 지불일

자가 아직 안된 소위 선어음이나 선수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그 지불 기간이 일년을 넘지 않음으로 이것도 유동 자산에 속한다.

(4) 외상 매출금 :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외상 매출 채권을 말하며 통상 1년 이내에 수금이 될 것임으로 이것도 유동자산에 속합니다.

(5) 유가증권 : 증권 또는 사채(社債)등과 같은 유가 증권도 1년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유동자산에 속한다.

(6) 상품 또는 제품 : 그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상품을 말하며 이것도 판매와 동시에 현금화 되든가 외상으로 판매했을 경우라도 1년 이내에 수금이 될 것으로 유동자산에 속한다.

(7) 반제품(半製品) : 완전한 제품은 아닌 제조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제품을 말하며 이것 또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여 현금화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내 임으로 유동자산에 속한다.

(8) 원재료 : 제품의 원료를 말하며 축산업에

서는 가축의 사료와 사료용 곡물 및 그 부산물을 말한다. 원재료로서의 원료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 1년이내에 현금화 될 것임으로 유동자산에 속한다.

(9) 기타 단기 채권 : 직원이나 임원에 대한 일시 가불금 등과 같은 미수금을 말하며 이것 또한 1년이내에 회수될 것임으로 유동 자산에 속한다.

이상 설명한 계정 이외에 유동 자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0) 건설 가계정 : 이것은 현재건축중인 미완성 건물과 시설중인 미완성된 시설이나 기계에 지금 까지 지출된 금액을 집계한 계정으로서 건축이나 시설설비가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계정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가계정(建設假計定)이란 명칭을 쓰는 것이며 후일 건물이나 시설 설비등이 완성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출된 총금액을 마감하여 후에 설명할 고정자산중의 건물 계정이나 기계 기구 계정등으로 옮겨서 처리하게 된다.

